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우호도서 순회전시 **3지역에서 개최**

작년 3월,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의 우호제휴 1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우호도서 기증식'을 통해 홋카이도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서들을 기증받았으며, 이 우호도서들은 작년 11월부터 세 달 동안, 한국과 교류 중인 도내 세 지역(기타미, 아바시리, 아사히카와)의 도서관에서 순회전시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아사히카와 중앙도서관에서 홋카이도의 우호지역인 서울특별시 및 추천 우호도서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아바시리 시립도서관, 기타미 시립 중앙도서관에 전시된 우호도서



초등학교 온라인 교류 실시

삿포로 시내 초등학교(후시미초 6학년, 신에이초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래는 국제교류원이 각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은 보통 국제교류원이 학생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문화 차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 일본의 여관, 음식, 건축, 전통음악을 비롯한 일본 고유의 문화와 함께 학생들이 친구들과 즐거하는 게임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로부터 소중한 편지를 받아서 감동적이었습니다!

퀴즈로 알아보는 일본 문화!

1. 일본의 온천 여관 객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다과는 언제 먹는 것일까요?

- ① 온천욕을 하기 전
- ② 온천욕을 즐기면서
- ③ 온천욕이 끝나고 난 후



2. 생선 초밥의 맛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어느 부분에 간장을 찍어야 할까요?

- ① 밥과 생선에 골고루 찍는다
- ② 밥에만 찍는다
- ③ 생선에만 찍는다



3. 성을 축조할 때, 성곽 내부의 길을 구불구불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 ① 손님들을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 ② 침입한 적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 ③ 꽃과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해



4. 하츠네 미쿠 등의 캐릭터를 탄생시킨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 ① 안드로이드 (Android)
- ② 보컬로이드 (Vocaloid)
- ③ 셀룰로이드 (Celluloid)



정답)

①-가 (1. 日本の温泉旅館の客室に備わっている多岐は、いつ食べるのでしょうか?)
 ②-c (2. 魚の寿司の味を正しく楽しむためには、どの部分に醤油をかけるべきですか?)
 ③-2 (3. 城を築くとき、城の内側の道を曲がりくねらせる理由は、何のためですか?)
 ④-1 (4. ハツネミクなどのキャラクターを生み出した音声合成ソフトウェアの名前は、何ですか?)

국제교류원의 활기찬 겨울나기

세 번째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버스도 전철도 며칠 동안 운휴가 지속되는 바람에 눈길을 걸어서 출퇴근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밖을 걷다보면 끝없이 리필되는 눈꽃 빙수의 나라에 온 것 같았고, '진짜로 먹을 수 있는 눈이 내린다면 모두에게 행복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굶은 날씨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번 겨울에는 다양한 일들을 하며 알찬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싶어 국제교류원의 겨울 나는 법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치토세시에 위치한 '시코츠호'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수심이 깊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호수입니다. 겨울철에 호숫가에서 열리는 '치토세·시코츠호 호토 마츠리' 축제장에는 호숫물을 얼려 만든 거대한 오브제들이 준비해 있어 마치 게임 속 세상을 방불케 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탔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마코마나이 세키스이하임 아이스아레나 빙상장은 1972년 삿포로 올림픽 경기가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겨울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곳은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는 이벤트장으로 운영됩니다.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키장에 가봤고, 스노보드를 타는 법도 배웠습니다. '여태까지 왜 한번도 와볼 생각을 안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네 가까운 곳에 스키장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동물원인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다녀왔습니다. 눈이 쌓인 겨울철에는 펭귄들이 원내를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뒤뚱 뒤뚱 줄을 지어 걷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동물원이 너무 넓어서 하루 만에 전부 둘러보진 못했습니다.



도청 정원에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홋카이도에 내리는 파우더 눈은 밀가루처럼 보슬보슬해서 잘 뭉쳐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올해는 제법 묵직한 눈이 와서 눈사람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눈이 쌓이고 녹기를 반복하며 매일 조금씩 다른 풍경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니 겨울은 고요하지만 생동감 있는 계절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운교 온천 빙폭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고드름들이 천장을 가득 메운 얼음 동굴 속은 동화책에 나올 법한 마녀의 성 같았습니다. 때마침 거센 눈보라가 치던 날씨 덕분에 '진정한 겨울 축제'를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매년 2월 중순경 오타루에서 열리는 '오타루 유키야카리노 미치' 축제에서는 밤길을 수놓은 눈 조각들과 촛불을 감상하며 겨울의 포근함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